

## 하절기 질병예방은 이렇게



경기 이천 서울가축병원 원장

구 자 홍

금번 여름철은 예년에 비해 훨씬 앞당겨 졌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젖소의 질병예방 대책이 강조되는바, 모든 질병은 그 치료에 우선하여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질병의 예방교육에 관심이 많은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 수년전 부터 일부 농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질병의 예방관리 및 정기진료제도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서 하절기 질병예방에 보탬이 되고져 한다.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질병의 발생율이 높아지는 원인을 찾아 보려면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면 쉽게 이해 하리라 생각된다.

★ 생리적요인(품종, 감수성, 연령, 성별 등)

★ 환경적요인(기후, 풍토, 온도, 습도, 바람, 비, 우사의위치, 우사의 구조 등)

★ 영양적 요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소, 비타민, 광물질, 소금등)

★ 세균학적요인(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원충, 해충등)

다시 말하면, 질병의 발생은 수십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 지겠지만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예를 든 몇가지 사항에 맞추어 보면 쉽게 설명드릴수 있다.

우선 생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국내의 대다수의 목장과 비육농가에서 사육되는 젖소의 품종은 홀스타인 종인데 이들은 섭씨 5℃~10℃사이 온도범위 내에서 생활하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나 20℃가 넘으면서 부터 더위를 타며 식욕과 유량의 감소를 보이며 30℃이상의 온도에서는 몹시 괴로움을 느낀다.

더구나 30℃ 이상의 온도가 수일간 지속된

한여름 불볕더위를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  
영양가 높은 고단백식품을 권장한다.  
동물에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활력을 유지시켜 혹서기를 무난히 보내야

다면 그 생명이 위태로워 질 정도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리적인 면에서나 환경적인 면에서 가혹한 여름철은 젖소에게는 무척 견디기 힘든 계절인데, 평소에 젖소의 건강상태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어 불리한 환경을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예방질병의 목적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축사의 시설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며 그늘막을 높게, 넓게 설치해 준다. 또한 급수시설을 점검하여 충분한 양의 시원한 물을 마음껏 먹도록 한다.

개체별로 질병의 유무를 점검하여 유방염, 부제병, 자궁내막염, 호흡기질환, 장염 등등 열성질환이 있는 소들을 가려내어 조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높은 외기온도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또 한편으로 체내에 열성질환으로 인한 고열이 생기면 이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식욕저하 유량감소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또한 분만후 후산이 정체되는 경우에도 같은 증상을 볼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만 4주전에 세레니움과 비타민E의 합제를 미리 주사해 줌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후산이 정체된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부제병이 여름철에 발생되면 그 치료 효과가 다른 계절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으며

치료기간도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부제병의 예방책으로는 2% 유산동액의 욕조를 연중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봄, 가을 연중 2회 걸친 정기적인 삭제가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방염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것으로 젖소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고온 다습한 기후가 원인인데,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세균의 활동은 극대화되는 것으로 여름철에 유방염이 다발되는 원인인 것이다. 특히 급성유방염의 경우 산전산후 증대된 유방및 유두의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분만전 우유가 샌다든지, 산후 후산정체시 오로가 유방 또는 유두에 묻어 상처를 통한 급성유방염으로의 진행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분만 직전직후 각각 10일 동안의 기간에는 하루에도 몇번씩 유두침지 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장마철에는 통풍과 환기에 유의하여 우사내에 오염된 가스가 저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호흡기질환을 예방해 주며 변질된 사료나 풀을 급여하여 초래되는 소화기계통의 질병인 식채, 고창증, 하리등의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 또한 강한 직사광선에의 노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하여 체온조절기능의 장애로 일어나는 전신증상을 일사병, 열사병이라 하는데, 젖소의 경우보다 비육우에서, 마른 소보다는 살이 많이 찐 소에서 볼 수있는 증상이다.

30℃ 이상의 고온이 수일간 지속되거나, 소나기 끝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지표면의 습기가 수증기로 변할때, 주위가 논으로 둘러싸인 저지대의 우사에서 발생되기 쉬운데 이 경우 소는 복식호흡을 거칠게 하고 거품이 섞인 타액을 흘리며 혀를 내밀고 눈은 충혈되며 체온의 급상승을 보이는데 대개의 경우에 체온계의 끝까지 수은주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소는 지각상실이 되고 평형감각을 찾지 못해 비틀거리게 되며 심한 경우 경련을 수반하며 결국은 호흡중추의 마비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증상을 가졌던 소는 증상이 없었던 소에 비해 재발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사람의 경우에도 더위 먹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치료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것을 양축가 여러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대강 소개를 해 드렸으며 다음에 서술한 사항들은 평소에 우군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한 권장사항들이다.

- ① 월2회 비타민 ADE 근육주사
- ② 베타 케로틴 급여(분만직후~임신태이까지)
- ③ 분만4주전 세레니움, 비타민E 주사
- ④ 분만 7일전 비타민 D<sub>3</sub> 주사
- ⑤ 미네랄, 소금, 버퍼제 급여
- ⑥ 고능력우의 경우 : 유산균제급여
- ⑦ 산후 자궁내염증의 조기치료
- ⑧ IBR, BVD 등 백신주사
- ⑨ 년중 2회 구충제 투여
- ⑩ 유방염, 체세포수의 정기적 점검

물론 위의 사항들은 한가지 예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의 에너지, 단백질 그리고 조사료의 급여등 사양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질병및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및 치료법을 도표로 작성해 보았다.

## 후산정체의 경우

1. 분만즉시 손과 외음부를 소독한후 자궁보러스 2~3개를 자궁깊숙히 넣어준다.

## 소화기 계통의 경우

원인	소화제 투여	위 장 연동제주사	가스제거제 투여	투관침 사용	위내항생제주입	절식	참 고 사 항
식 체 과 식	○	○				○	단순식체, 2차적 식체의 구분치료
고창증 변 질 된 사 료, 풀	○	○	○	○	○	○	유열, 그래스태다니, 파상풍등 전신마비 증상에서 고창증수반
포말성 고창증 변 질 된 곡유과급	○	○	○	○	○★	○	★포말이 가스로 변한다음 가스제거, 심한 경우 외과적 수술요함
하 리 변 질 된 사 료, 풀	○					○	단순하리, 부패성, 세균성으로 구분

## 유방염의 경우

	세균배양 검사의뢰	치료제주입 회수(1日)	예 방 책	참 고 사 항
만 성 유 방 염	○	2회	착유기의 정확한 조작 착유기 점검	건유기를 이용한 집중적치료
산 전 유 방 염	○	5회이상	건유시 분방별 배양검사 감염분방에 대한 적절한 치료	유선조직의 손상정도, 경결정도 비유량 참작
급 성 유 방 염	○	5회이상	산전 산후 수일간 유방및 유두에 연고도포, 침지소독	다량의 약액 유방내 주입(5회이 상) 전신증상시 대증요법 필수
괴저성유방염	○	5회이상	급성의 경우와 동일 깨끗한 깔짚 사용	초기 발견시 감염된 유두절단 도태여부를 수의사와 상의

2. 정상적으로 후산이 배출된후 재차 보리스를 넣어준다.
3. 후산이 정체되면 5~7일 사이에 후산을 제거 해 준다.
4. 정체된 후산이 길게 매달리지 않게 외음부로부터 15cm 정도의 길이에서 잘라준다.
5. 분만 4주전의 비타민E와 세레니움의 주사는 매우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수있다.
6. 열성질환이므로 해열제주사 30분후 해열이 되었을때 사료나 풀을 먹이는 요령을 찾는다.

## 일사병과 열사병의 경우

이 병의 특징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섭씨 30℃이상의 고온이 수일간 지속될때면 사양가는 특별히 이 증상에 대한 관찰을 해야한다. 일단 환축이 발견되면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로 옮겨 주어야한다. 옮기는 작업이 힘들 경우에는 그 자리에 태양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해 주며 시원한 물을 두부와 사지에 우선적으로 뿌려주어야 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진정제를 사용하여 체온을 내려 줄수도 있으며 안정을 시켜주어야한다. 탈수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다량의 생리 식염수를 정

맥내에 주입하며 한편으로는 강심제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원한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열사병과 일사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 맺는말

한여름 불볕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영양가높은 고단백식품을 권장한다. 다시 말씀드려 인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이다. 젖소의 경우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활력을 유지시켜 주도록 애정과 정성을 쏟아 혹서기를 탈없이 보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